■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퀀트/ESG 이성훈 shl076@kiwoom.com

미 증시, M7 주가 불안 vs 2 분기 GDP 호조 등으로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25 일(목) 미국 증시는 2 분기 GDP 호조 등 경기침체 우려 완화에 상승 출발했지만, AI 관련주들의 실적 우려가 재차 부각되며 주요 빅테크주 중심으로 하락한 영향으로 3 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다우 +0.20%, S&P500 -0.51%, 나스닥 -0.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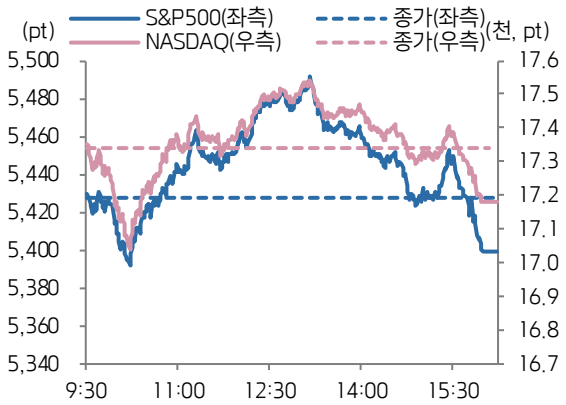
미국의 2 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연율 2.8% 증가하며 컨센서스(2.0%)와 전분기(1.4%)를 모두 상회. 금번 경제성장률 호조는 경제활동의 3 분의 2 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와 민간 재고투자 그리고 비거주 고정투자가 크게 기여. 한편 2 분기 개인소비지출은 2.3% 증가하며 전분기(1.5%) 대비 개선세. 2 분기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기 대비 2.6%를 기록하며 전분기(3.4%) 대비 둔화세.

한편, 미국의 6 월 내구주 수주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대비 6.6% 감소한 2,645 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컨센서스(+0.3%)와 직전수치(+0.1%)를 큰 폭으로 하회. 국방을 제외한 6 월 내구주 수주 실적 또한 전월 대비 7% 급감, 운송 장비를 제외한 내구재 수주는 0.5% 상승.

미 노동부에서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수는 지난주 대비 1 만명 감소한 23.5 만명으로 집계하며 컨센서스(23.7 만명)을 하회. 그럼에도 최근 경기 하방 리스크 가중되며 미 연준의 7 월 금리 인하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 세인트루이스 전 연은 총재 불라드는 7 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고 언급. 불라드에 따르면, 7 월에 미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만 줄 뿐 실제로 인하 시점은 9 월이 될 것이라고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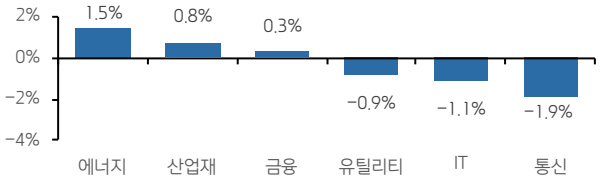
주요 업종별 등락률을 살펴보면, 에너지(+1.47%), 산업재(+0.76%), 금융(+0.28%) 등의 업종은 상승. 반면, 커뮤니케이션(-1.86%), IT(-1.14%), 유틸리티(-0.88%) 등의 업종은 하락. 장 초반 대형 기술주들은 상승세를 보이며 양호한 출발을 보였지만, 후반에 AI 관련주들의 실적 불안이 지속되며 재차 하락 전환. 주요 종목별로 살펴보면, 메타(-1.7%), 알파벳(-3.1%), 아마존(-0.54%), 애플(-0.48%), 엔비디아(-1.72%) 등의 주요 빅테크주 중심으로 하락세. 다만, 테슬라(+1.97%)는 최근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매수세 유입되며 상승. IBM(+4.33%)은 실적 발표에서 AI 소프트웨어 및 컨설팅 예약규모가 급증했다는 소식에 상승.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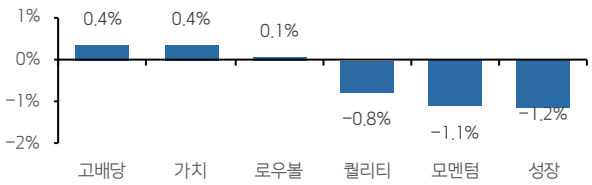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710.65	-1.74%	USD/KRW	1,382.72	+0.22%
코스피 200	371.26	-1.95%	달러 지수	104.39	+0%
코스닥	797.29	-2.08%	EUR/USD	1.08	+0.01%
코스닥 150	1,322.53	-2.36%	USD/CNH	7.24	+0.02%
S&P500	5,399.22	-0.51%	USD/JPY	153.93	-0.01%
NASDAQ	17,181.72	-0.93%	채권시장		
다우	39,935.07	+0.2%	국고채 3 년	3.020	-2.5bp
VIX	18.46	+2.33%	국고채 10 년	3.122	-1bp
러셀 2000	2,222.98	+1.26%	미국 국채 2 년	4.431	+0bp
필라. 반도체	5,005.36	-1.96%	미국 국채 10 년	4.241	-4.3bp
다우 운송	15,659.59	+1.26%	미국 국채 30 년	4.483	-5.9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811.28	-1.04%	WTI	78.28	+0.89%
MSCI 전세계 지수	796.78	-0.72%	브렌트유	82.43	+0.88%
MSCI DM 지수	3,490.82	-0.72%	금	2399.9	-2.6%
MSCI EM 지수	1,073.98	-0.78%	은	27.81	-4.5%
MSCI 한국 ETF	64.06	-0.7%	구리	411.25	+0.3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4%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2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81.1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테슬라 vs 알파벳, 엔비디아 등 엇갈린 M7 주 흐름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2. 밸류에이션 매력 확대에 따른 장중 저가매수세 유입 여부 3. 기아, LIG 넥스원 등 주요기업 실적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2.0%) vs 엔비디아(-1.7%), 알파벳(-3.0%) 등 M7 간 엇갈린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증시 변동성이 큰 폭 확대됨에 따라, 증시 방향성 고민을 가중시키고 있는 모습. 하지만 장 초반 7% 가까이 급락했던 엔비디아 등 빅테크주들의 이틀전부터 전일 장 초반까지 이어졌던 투매현상이 완화된 채 마감했다는 점은 안도 요인.

또 지난 AI 산업 수익성 우려와 함께 24 일 미국 증시 폭락을 초래했던 또 다른 배경으로 지목됐던 미국의 침체 우려였음. 최근 더들리 전 뉴욕연은 총재가 고용시장 냉각으로 인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7 월 인하를 언급하기도 했던 만큼, 미국 침체 진입 시 AI 업체들을 넘어 전반적인 미국 기업 실적이 큰 폭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하지만 이번 2 분기 성장률 서프라이즈(2.8% vs 컨센 2.0%)를 기록한 가운데, ISM 제조업 PMI 등 여타 선행지표 상으로 침체 진입 보다는 소프트 랜딩에 그칠 확률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여러모로 AI, 반도체 등 그간 주도 업종에 대한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높은 시기이기는 함. 그래도 차주 이후 예정된 MS, 메타, 알파벳, AMD, 퀄컴, 애플 등 여타 주요 AI 및 테크주들의 실적 이벤트를 거치면서 AI 수익성 훼손 우려를 불식시킬 가능성도 열려있는 만큼, 매도 보다는 중립으로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테슬라, 알파벳 등 M7 중심의 미국 증시 폭락 여파로 투매현상이 장초반부터 출현한 가운데, 그 과정에서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업종들이 동반 급락세를 보이면서 1%대 하락(코스피 -1.7%, 코스닥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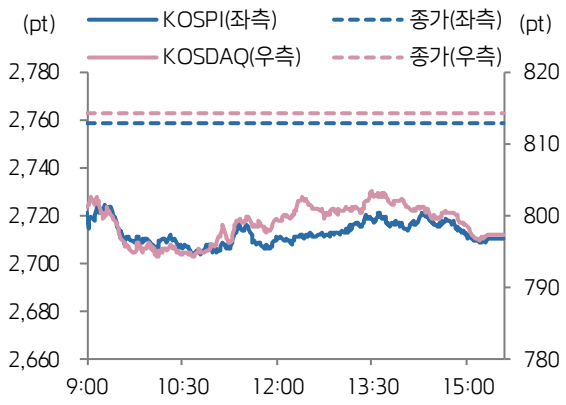
금일에도 M7 주가 불안 지속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미국 증시의 투매 현상 완화, 전일 폭락이 과도했다는 인식 등이 낙폭과대업종을 중심으로 기술적 및 저가 매수세를 자극하면서 장중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나갈 것으로 예상. 또 작금의 환경 속에서도 실적주들은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 시, 금일 실적 발표 예정인 기아, 현대모비스, LIG 넥스원 등 개별 실적에 따라 차별화 장세를 보일 전망.

최근 코스피가 미국 증시와 동조화를 보이면서 불안한 주가 흐름을 연출하고 있으며, 전일 종가 기준으로 중기 추세선인 120 일선(2,709pt)을 위협받으면서, 기술적인 추세 하락 반전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 하지만 펀더멘털이나 밸류에이션 상 추가 하방 여력은 크지 않다고 판단. 가령, 코스피의 12 개월 선행 PER 이 9.23 배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 AI 산업 피크아웃 우려에도 국내 상장사들의 이익전망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7 월 25 일 기준, 코스피 '24 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은 월초 276 조원에서 275 조원으로 소폭 하향).

코스피의 방향성이 하방 쪽으로 단기간에 틀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수급 환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올해 코스피의 주가 방향성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수급상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연초 이후 7 월 25 일까지 코스피 주가와 외국인 순매수간 상관계수는 0.86, 기관과는 -0.13, 개인과는 -0.91 을 기록). 그 가운데 7 월 이후 코스피에서 지난주 -9,140 억원, 이번주(~25 일) -7,780 억원으로 2 주 연속 순매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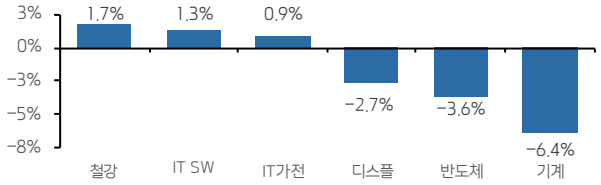
하지만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비해 순매도 규모는 크지 않으며, 7 월 월간으로 1.3 조원대 순매수를 기록 중인 상황. 결국, 외국인들의 매매 방향성이 바뀌는 시점은 주간 단위 수급 상으로 3 주~4 주 연속 순매도에 나설 때였다는 점이 과거의 경험이었음(ex: '23 년 6 월, 9~10 월). 현시점으로부터 2 주뒤 시점이자 미국 여타 M7 및 국내 주요기업 실적을 확인하는 8 월 초까지는 이들의 방향성 훼손에 대한 과도한 불안은 지양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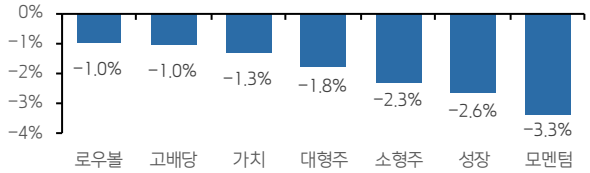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7월 25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